

의안
번호

1320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황점복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황점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0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의 원 : 황점복 · 구점득 · 김경수 · 김우진 · 남재욱
백승규 · 박강우 · 서영권 · 이우완 · 이해련
정길상 · 홍용채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함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추가 투입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규정된 투표용지 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일으킴
-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선거 당일 투표 지연 및 중단 등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촉구
- 정부와 국회 등에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 및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엄정한 문책,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 촉구

3. 건 의 문 : 붙임

- ##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1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성산구 2개소를 포함하여 경남지역에서도 8개 투표소에 추가로 투표용지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다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고 봉합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선거관리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관리의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일

창 원 시 의 회